

## 서울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과 선진도시 사례를 통해 본 지원방안

- 변화하는 문화환경
- 해외도시 사례를 통해 본 지원방안
- 서울시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 변화하는 문화환경

문화예술인·문화예술단체 등 문화적 자산이 도시의 경쟁력임.

- 2002년 4월 미국의 연구기관인 Alliance for the Arts가 맥킨지에 의뢰해 발간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비영리문화단체가 시의 경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연간 57억 달러 이상, 영리적 산업(브로드웨이, 영화, 화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88억 달러에 달함.
- 플로리다(R. Florida)는 자신의 저서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에서 자치정부가 예술진흥에 앞장선 도시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관광산업도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기업들이 이전을 원하는 곳으로 거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함.
- 2000년 싱가포르 정보예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The Arts, MITA)는 지리적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싱가포르 시를 국제적인 예술의 허브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제예술행사 유치에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5년간 5,000만 싱가포르 달러)함. 호주 멜버른 시는 아예 예술을 위한 도시(City for the Arts)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고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도 '서울문화의 창조'를 2004년 4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분권형 문화예술 지원모델의 도입과 서울문화재단 설립

-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새로운 경향임. 전통적으로 예술위원회(Arts Council)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형 문예지원모델을 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국립예술진흥원이 총기금의 40% 이상을 각주의

예술진흥기구에 정액교부금 방식으로 할당하고 있음. 가장 강력한 중앙부처 모델 형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역시 문화부의 지역대표부라고 할 수 있는 DRAC에 권한을 상당히 이양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문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점차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정책이 해당 지역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에 용이하다는 점, 문화행정기구의 구조혁신과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따른 새로운 사업 도입에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문화의 분권화는 가속화될 전망.
-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극히 일부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서울은 제외)에 할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금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해왔으며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음.
-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필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음. 문화관광부에서도 2003년 문예진흥법 개정안에 지방문화예술위원회 혹은 지방문화예술재단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지방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에 입각한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급

- 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서울시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중복되다보니 대동소이한 소액 다건식의 사업만 많아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음.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민관 간, 정부의 문화국(과)와 문화재단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체계화가 필요함
- 또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민간의 예술전문가가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관주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지원의 기준과 심사 및 평가과정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음. 2004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제에서 민간참여형 위원회 구조로 개편될 예정임.
- 2004년 서울문화재단의 설립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파트너십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 주요국가의 공적 예술지원 체계 〉

	중앙부처	전국단위 불간섭지원기구 <sup>1)</sup>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진흥기구 <sup>2)</sup>
한국	문화관광부	한국문예진흥원 (문예진흥기금)	각시도 문화국/과 및 문화재단 (지방문예진흥기금 및 지방정부예산)
미국	없음	국립예술진흥원 (국립예술기금)	주예술기구 (NEA 및 주정부예산) 광역예술진흥기구 (소속 주정부예산)
프랑스	문화통신부	없음	각시도 문화국 및 DRAC (문화부 예산)
영국	문화매체체육부	4개의 예술위원회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문화매체체육부 예산 및 국민복권기금, 나머지 3개는 각각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정부 예산)	지방예술위원회 (소속 예술위원회 및 지방정부 예산)
호주	통신정보기술예술부	호주예술위원회 (정부예산과 기부금)	주정부예술위원회 및 지방예술위원회 (호주예술위원회 및 지방정부 예산)
캐나다	문화유산부	캐나다예술위원회 (정부예산과 기부금)	주정부예술위원회 및 지방예술위원회 (캐나다예술위원회 및 지방정부 예산)

※ 1) 괄호안은 주요기금 명칭  
2) 괄호안은 예산의 출처

## 서울시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 문화예술기금사업: 목표와 지원기준 미비

- 서울시가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출연한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액수는 약 300억 원으로 이자율의 하락에 따라 수익금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향후 서울문화재단에서 시의 출연을 통해 기금을 1,000억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임.)
- 서울시는 200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수익금 10억 원에 시비 지원 5억 원을 합쳐 총 1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9건에 13억4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음(건당 평균 642만원 정도임).
- 지금까지 서울시 문화예술기금 지원사업은 목표와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지역사회와의 결합 노력 미흡

- 대부분의 해외도시들이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도시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리는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지원사업은 장르별로 액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며 평가기준도 애매함.
- 해외 광역자치단체나 도시정부 산하의 예술위원회 등 팔길이기구(Arm's length body)는 예술정책의 타깃집단을 주민, 특히 소외계층으로 삼거나 낙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사업은 지역사회와 결합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분류 〉

정책목표	사업목표	사업내용
문화예술 창작 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 지역문화예술회관 확충 및 지원 · 문화지구 조성 확대 추진 · 서울문학의 집 운영 · 총무로 영상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지원	· 무대공연창작작품 지원 · 서울시향 운영 · 전문문화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 · 문화재단 설립
	아마추어 문화활동 지원	· 어머니 경연대회 지원
시민문화향수 지원	시설확충	·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 · 지역공공도서관 확충 지원 · 작은 도서관 건립 · 효자동 사랑방 지원 · 한국점자도서관 지원 · 서울여성영화제 지원
	문화축제와 행사개최	· 월드컵경기장 주말문화행사 지원 · 한강 좋은 영화감상회
문화교류 지원		· 서울공연예술제 지원 · 서울드림페스티벌 지원 ·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 서울-타이베이 예술가교환 주재 활동
문화보존과 육성 지원	시설확충	·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지원사업	·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발굴 지원 ·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 전통문화축제 개최

## 해외도시 사례를 통해 본 서울시 지원방안

‘창작의 도시 서울’ 등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지원 필요

- 현재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서울시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문예진흥기금사업과 차별화 된 지원전략을 구사해야 함. 서울에는 예술교육기관과 공연 및 전시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신진예술가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장점이 있음. 이를 살려 현재의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책정하거나 새로 기금(가칭 ‘신진예술가를 위한 창작기금’)을 출연하여 창작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술가 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들의 안정적 작품 활동을 돕고 예술가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시는 공간과 운영경비 및 예술가들의 체류경비를 제공하고 수혜 예술가들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아 컬렉션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함.

사례 : 파리의 국제예술가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a Paris*), 싱가포르시의 예술가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사업을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 현재 공립 사회복지관이나 구립체육센터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대동소이함.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의 예술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특히 주 5일 근무 시대를 맞아 양질의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 파리의 야간 강좌(*Cours du soir*)

- 현재 음악미술 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예술교육에 신진 예술가들을 투입하여 일종의 TA(Teaching Assistance)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함. 또한 예술교육의 내용을 영상교육, 문화리터러시 교육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가 요청할 시 전액, 혹은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하되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사례 : 워싱턴시의 예술교육 프로젝트 지원금 및 예술가 당번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발전전략에 문화예술인의 개입 필요

- 서울시 기본계획 및 도시발전전략에 문화적 측면을 반영해야 함. 문화는 더 이상 마지막에 추가되는 장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서울시의 기본계획이나 경제발전전략

수립 단계부터 문화예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도시의 어메니티 수준을 제고해야 함.

사례 : 토론토시는 기본계획과 경제발전전략 수립시 문화측면을 반영하고 있음.

- 도시계획, 가로 및 간판 정비, 문화지구 지정 등의 공공사업에 예술가를 참여시켜 생활 속의 예술을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함.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건물외관, 간판, 가로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사례 : 워싱턴 DC의 '디자인 팀' 과 '표현디자인 프로젝트'

#### 공공미술 정책과 지역사회 정체성의 결합

- 대부분의 경우 건물 앞 조각품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건축물 1% 법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여 공공미술에 관한 기금으로 만들고 공공미술과 도시의 정체성을 좀 더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문화관광부와 협의 필요).

사례 : 워싱턴 DC의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 사회정책과 문화정책의 결합

- 문화소외계층과 낙후된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함. 특정장소,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겨냥한(site-specific) 예술품 제작과 예술가 체류를 지원함.

사례 : 워싱턴 DC의 도시 예술 프로젝트(City Arts Projécts)

- 재개발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의 시유지에 하이브리드 도서관, 멀티유즈 문화공간 등을 우선 유치함. 시정부의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재개발사업에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협조를 얻기 쉬운 장점이 있음. 재원은 상암지구와 같이 시가 분양하는 사업의 이익금 등의 일부를 출연하고 민자유치를 시도해 마련하는 방법,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마련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사례 : 뉴잉글랜드예술재단의 '예술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영국 DCMS의 지역사회 재생 사업

#### (가칭) 아시아문화센터의 건립

- 최근 서울에는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해 상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음. 서울에 와서 고국의 문화를 그리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은 경우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함. 서울에 있는 해외공관 및 외국문화원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이 아시아의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이를 위해 영화관, 전시관, 소규모 공연장,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아시아문화센터 건립을 고려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비아시아권 관광객들이 아시아 여행의 출발점 혹은 종착점으로 삼을 수 있는 랜드마크로 육성함.

사례 : 파리의 아랍세계문화원(*institut du monde arabe*)

#### 지원수단의 다각화

- 현금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방식을 다각화하여 연구 지원, 행정서비스 지원, 공간을 비롯한 하드웨어 지원, 운영 및 관리 노하우 등 소프트웨어 지원, 기술 지원 등으로 넓혀나갈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시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 문화적 불평등 현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토대로 정책이 마련되고 평가가 시행되어야만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 받을 수 있고 공공-민간 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사례 : 싱가포르의 예술 연구 및 개발 지원사업

- 하드웨어 지원에는 여러 가지 사유(이전, 철수, 용도폐기)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건물을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예술단체에 장기임대하는 방안, 혹은 시 소유의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들과 기타 문화예술단체들이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혹은 설비를 보충할 때 지원하는 방안, 광장·소규모 공원 등에서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음.

사례 : 뉴욕시 문화국의 디자인, 건설, 설비 자금 지원사업, 싱가포르 시의 공원 콘서트 지원사업

- 소프트웨어 지원에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단체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지식 제공 및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거나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 또 예술단체의 재정 자립과 자체 자원조달 노하우를 교육시켜주는 방안 등이 있음. 이런 사업은 문화재단이 맡아야 할 것임.

사례 : 뉴욕주예술재단의 회계 스폰서십(*Fiscal Sponsorship*) 제도, 온타리오주예술위원회의 (*Compass Program*)

- 기술지원에는 예술단체 혹은 중소규모 시설(박물관, 도서관 등)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파견하거나 컴퓨터, 초고속망, 서버 등 기술 장비를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안이 있음.

사례 : 빅토리아주 예술위원회의 정보기술 설비 지원 사업, 뉴욕주예술재단의 기술지원 컨설팅 사

- 정보제공 역시 중요한 예술지원의 형태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가 각각 여러 기관들이 정보를 찾아 헤매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전개하는 방안과 또 미술가나 작곡가 해외시장에 작품을 판매하거나 연주자가 해외공연을 나갈 때 절차에 관한 정보와 요령 등을 알려주는 사업 등이 있음. 문화재단의 전문 상담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

사례 : 싱가포르 *NAC*의 문화포탈사이트

- 서울문화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단기용으로 관광객이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박물관, 고궁 등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1일, 3일, 5일 패스, 그리고 서울시 및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할인혜택을 포함시킨 연간 문화카드제(가족카드의 경우 할인폭 증대)를 도입할 수 있음.

사례 : 독일 본 시의 아츠카드 제도, 토론토시의 박물관 패스카드, 파리의 파리 비지트 카드

- 예술 공급자와 수요자, 비어 있는 공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단체의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인력, 시설, 단체 등을 네트워크화하고 문화인력의 구직뱅크를 구축하는 등 문화자원의 체계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사례 : 캐나다 문화유산부의 네트워킹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이호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  
02-2149-1271  
ehoyeong@sdi.re.kr